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1. 8.31.(수)

보도자료

2011년 8월 31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크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(☎750-2770)
개인정보보호윤리과 한지혜 사무관(☎750-2773) han@kcc.go.kr

“자기정보보호... 동의하십니까 ☑”

-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‘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 실시 -

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 동안 “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을 실시하고,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<비밀번호 집중 변경기간>을 운영할 예정이다.

“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에는 통신, 포털, 언론, 쇼핑몰, 금융, 의료, 교육, 소셜커머스 및 커뮤니티 등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상의 ‘비밀번호 변경’, ‘휴면계정 정리’, 및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‘아이핀(*i*-PIN) 전환’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.

JYJ를 주요 모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TV 및 라디오·인터넷·지하철·버스·극장·SNS를 통한 각종 광고와 포스터, 전국 대학의 정보보호 동아리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.

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국내 주요 사이트에 게시된 팝업 또는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거나 직접 캠페인 사이트 www.doitnow2011.kr에 접속하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. 또한 네이버·다음·네이트에서 “자기정보보호”를 검색하면 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보호조치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히며, “이용자 스스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역량을 길러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덧붙였다.

붙임 : ‘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’ 포스터 1부. 끝.

[붙임] ‘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’ 포스터